

제1강 교수의 자기고백 I : 윤동주의 「별 헤는 밤」

(1교시)

윤동주의 「별 헤는 밤」



윤동주의 아름다운 어린 시절은 그의 시 「별 헤는 밤」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다. 그가 쓴 작품 가운데 가장 긴 이 시야말로 그의 온 생애를 집약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의 어린 시절, 명동촌의 하늘과 바람과 별이 아로새겨져 있는 데서 출발한다. 물론 윤동주의 생애를 세밀히 관찰해 보면 그의 어린 시절은 명동에만 있지 않다. 다시 언급하겠지만, 초등학교를 마칠 무렵 명동촌에서 용정으로 이사를 하는데, 용정의 생활이 어찌면 그에게 더 아로새겨져 있을 수 있다. 명동촌은 이 무렵 일본의 집요한 압박, 공산주의자들의 준동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러나 어린 윤동주에게 명동이 어디까지나 어린 시절이다. 그의 생애를 강하게 사로잡고 있는 어린 시절의 인상은 거기서 형성되었다. 그러기에 윤동주 연구가인 송우혜의 다음과 같은 지적은 매우 적실하다 할 것이다.

시인 윤동주에게 있어서 ‘명동’은 어떤 곳인가. 맑고 풍요롭고 평화로운 유년기의 체험을 가득 안은 마을. 그러나 그것은 다시 되돌아올 수 없는 세월의 다리 저편으로 건너가서 추억 속에서만 존재하기에 더욱 찬연하고 애뜻한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아보아야 한다. (송우혜, 『윤동주평전』에서)

그래서 ‘다시 되돌아올 수 없는 세월의 다리 저 편으로 건너가서 추억 속에서만 존재’하는 명동, 아니 윤동주의 어린 시절은 다음과 같이 추억된다.

계절(季節)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속의 별들을 다 헤일듯합니다.

가슴속에 하나 둘 색여지는 별을

이제 다 못헤는것은
쉬이 아침이 오는 까닭이오,
내일(來日)밤이 남은 까닭이오,
아직 나의 청춘(靑春)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하나에 추억(追憶)과
별하나에 사랑과
별하나에 쓸쓸함과
별하나에 동경(憧憬)과
별하나에 시(詩)와
별하나에 어머니,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小學校)때 책상(冊床)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일흔과, 패(佩), 경(鏡), 옥(玉) 이런 이국소녀(異國少女)들의 일흔과 별
서 애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일흔과, 가난한 이웃사람들의 일흔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푸랑시스 · 썸」 「라이넬 · 마리아 · 릴케」 이런 시인(詩人)의 일흔을 불러보
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슬이 멀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北間島)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많은 별빛이 나린 언덕우에
내 일흔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혀 버리었습니다.

따는 밤을 새워 우는 버레는
부끄러운 일흔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우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일흔자 묻힌 언덕우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 할게외다.

이 시는 1941년 11월 5일에 쓰였다. 이 날이라면 윤동주가 서울의 연희전문학교의 4학
년 마지막 학기의 하루, 졸업을 기념해서 자선 시집을 출판하려 준비하던 무렵이었다.

시는 모두 10연으로 되어 있다. 시의 원본 원고를 보면, 그 가운데 9연의 끝에 ‘1941.

11. 5'라는 서명이 들어가 있다. 윤동주는 자신의 작품 아래 늘 쓴 낱짜를 적어놓는 습관이 있었다. 이는 오늘날 그의 시를 연구하는 이들에게 무척 중요한 자료이다. 그것은 「별 헤는 밤」의 비밀을 푸는 데에도 매우 쓸모 있다.

서명은 9연의 끝에 붙어있다. 그렇다면 본디 여기까지 써서 마쳐놓고, 다음에 추가로 10연을 더 써넣었다는 말이 된다. 왜 그랬을까?

별빛이 내리는 가을 밤 언덕에 청년은 서 있다. 거기가 이 청년이 다니던 서울의 연희전문학교 기숙사 옆 언덕이었는지, 하숙을 하던 북아현동의 언덕길 한 모퉁이였는지 분명하지 않다. 이제 한 달만 있으면 졸업이다. 어렵게 들어온 대학이었고, 이제 졸업을 하면 그에게는 지금까지와 다른 세상의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는 이참에 자신이 살아온 생애를 돌이켜 본다. 꽤나 차분한 심정이 느껴진다. 아무 걱정도 없이 별을 헤고, 그것을 다하지 못하는 데도 그다지 염려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청춘은 다하지 않은 까닭이다.

도리어 추억과 사랑과 쓸쓸함과 동경과 시로 살아온 지난날이 절절이 다가올 뿐이다.

마지막에 나직이 어머니를 부른다. 어머니는 두 번을 연달아 부르고, 연을 바꿔 산문시로 나가면서 다시 부른다. 어머니를 이렇게 간절히 부른 시구(詩句)가 또 있었을까.

어머니와 한몫으로 달려 나오는 것은 바로 어린 시절이다. 그때 만난 모든 것들의 이름을 부른다. 어릴 적 친구들의 이름에서부터 가난한 이웃 사람, 존경하는 시인으로 옮겨간다. 그러다가 마침내 비둘기, 강아지, 토끼 같은 짐승들에게까지.

그런데 그들은 모두 멀리 있다. 거리로도 시간으로도 멀다. 그러기에 그립다.

언덕 위에서 청년은 여기까지 이르자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름을 쓴다. 자신의 이름이기에 부르기로 쓴다. 쓸쓸히 쓴 것인지 모른다. 그리고 흠으로 덮어버린다.

이것은 무슨 의식(儀式)이었을까? 가을이 깊어가는 언덕 위에서 먼 어린 시절과 고향을 생각하고,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고는, 마지막에 자신의 이름을 쓴 다음 흠으로 덮어버리는 세리모니. 청년은 마지막에 그 같은 의식의 이유를,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이라고, 슬그머니 벌레 한 마리 뒤로 가서 숨으며 말한다.

부끄러움 — 그렇다. 이 청년의 온 생애를 뒤덮었던 한 마디 말이다. 그 한 마디로 청년은 그의 한 생애를 정리하였다. 그가 불러본 어린 시절의 모든 이름들에게 부끄러웠다. 거기까지가 9연이다. 청년은 마침표를 찍고, ‘1941. 11. 5.’라고 서명한다. ‘별 헤는 밤’은 그렇게 끝났다.

하지만 그렇게 끝낼 수 있었을까. 청년은 못내 서운했다. 서명한 낱짜에 괄호를 쳐버리고 다음과 같이 이어나간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풀이 무성 할 게외다

새롭게 써 넣은 10연이다. 우리는 앞서 「쉽게 써워진 시」를 읽었다. 평이하게 진행하던

시가 마지막 두 연에 가서, 마치 휘몰아치듯, 결연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던가. 이 10연이 그렇다. 부끄럽기만 하다고 끝내기 싫었을 것이다.

이렇듯 한 연이 덧붙여진 데에는 보다 직접적인 까닭이 있었다. 다음에 다시 소개하겠지만, 윤동주를 있게 했던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하나인 정병욱, 바로 연희전문학교의 후배였던 그에게서 받은 조언 때문이었다. 이 시를 읽어본 정병욱은 뭔가 아쉽다고 말했다. 그 가을 밤이었을 것이다. 실로 윤동주는 자신의 시에 대해 완벽을 추구한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후배의 말에 고분고분 따른 것은 아마도 스스로 생각하기에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 이리라.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다. 여기서 좀 더 가필을 한다. ‘겨울이 지나고’와 ‘봄이 오면’ 사이에 ‘나의 별에도’를, 마지막 줄 앞에 ‘자랑처럼’을 써 넣는다. 그렇게 해서 다시 읽어보자.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 할 게외다

그것만이 아니다. 앞 연의 “밤을 새워 우는 버레는” 앞에 “따는(판은)”을 집어넣는다. 이런 과정을 거쳐 「별 헤는 밤」은 탄생한다. 이야말로 시인 윤동주의 완성이다.